

‘손’자녀를 위한 ‘조’부모의 신앙 안내서

할머니 ☆ 할아버지는 신앙 길잡이



'손'자녀를 위한 '조'부모의 신앙 안내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신앙 길잡이

초판 1쇄 발행 2019년 4월 23일

편찬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여성소위원회

발행인 김희중

발행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04918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74

전화 (02)460-7641

팩스 (02)460-7629

e-mail woco@cbck.or.kr

등록 1957년 7월 28일 제2-109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비매품

ISBN 978-89-7228-651-6 03230

‘손’자녀를 위한 ‘조’부모의 신앙 안내서
할머니☆할아버지는 신앙 길잡이

차례

- 07 • 신앙의 전달자가 되기를 바라며
- 08 • ‘손’자녀를 위한 ‘조’부모의 신앙 안내서 - 발간 취지
- 10 • ‘손’자녀를 위한 ‘조’부모의 신앙 안내서 - 활용법
- 11 • 머리말

10가지 길잡이 활동

- 23 • 1. 손자녀의 태교를 위해, 또 탄생을 축하하며 기도하기
 - 33 • 2. 손자녀를 낳은 딸·며느리를 위해 영적·물적 선물하기
 - 39 • 3. 손자녀에게 긍정의 언어 사용하기
 - 43 • 4. 손자녀의 기념일 축하하기
 - 51 • 5. 손자녀를 위해, 손자녀와 함께 기도하기
 - 63 • 6. 손자녀와 다양하게 신앙 맛들이기
 - 67 • 7. 손자녀에게 성경 읽어주기
 - 71 • 8. 손자녀와 함께 미사 참례하기
 - 75 • 9. 손자녀와 함께 순례·여행 다니기
 - 85 • 10. 손자녀와 함께 이웃 사랑 실천하기
-
- 89 • 신앙 안내서 - 본당 모임에서 활용하기
 - 90 • 신앙 길잡이 노트 - 작성 사례
 - 92 • 신앙 길잡이 노트 - 양식



신앙의 전달자가 되기를 바라며

1989년~1990년에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차례로 몰락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젊은이가 흥미로운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비밀리에 세례를 받게 하고 어릴 적 밤마다 우리와 함께 기도를 바친 사람은 대부분 할머니였다.” 기나긴 세월 집요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치하에서 그리스도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들이 훌륭히 신앙 전달을 해낸 덕분입니다.

할머니가 신앙의 전달자 역할을 한 경우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자신의 제자이며 협조자인 티모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기억합니다.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에우니케에게 깃들어 있던 그 믿음이, 이제는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다고 확신합니다”(2티모 1,5).

오늘날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훌륭한 신앙의 전달자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신앙 전달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책 제작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성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성 요셉 성월에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여성소위원회 위원장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

‘손’자녀를 위한 ‘조’부모의 신앙 안내서

발간 취지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신앙생활의 모범 보이기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복음이 복음을 체험한 이들을 통해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 전수되어 왔습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조부모가 생활의 모범을 통해 손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최고의 활동입니다.

♣ 탄생 전부터 ‘손’자녀의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기

기도는 자신의 존재가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음을 자각하는 신앙인의 행위입니다. 손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하는 신앙의 모범은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와 손자녀에게 생명 존재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신앙의 격려와 지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손’자녀와 다양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도모하기

이제 삶을 시작하는 어린 손자녀에게는 긍정적인 신앙 체험이 필요합니다. 조부모의 신앙의 경륜에 들어있는 즐거운 체험을 함께 나누는 일은 손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마련해 줍니다.

♠ '손'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새로 배우고 성장하기

손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신앙의 모범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그들을 곁에 두시기 위함이었습시다. 예수님 곁에 머물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통해 성장하고 능력을 받고 파견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시간은 서로에게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 가족·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수립해 나가기

그리스도교 신앙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는 개인을 넘어 가족과 이웃 안에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초대됩니다. 이 신앙 길잡이가 조부모가 가족이나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도와 드릴 것입니다.

* 신앙 안내서는 우선 시니어 세대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엄마·아빠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제작 취지 첫머리에만 '손'자녀·'조'부모로 따옴표 처리합니다.

‘손’자녀를 위한 ‘조’부모의 신앙 안내서 활용법

- * 안내서는 핵심적인 신앙 길잡이 활동 10가지를 소개하고 활동에 도움이 되는 세부 정보를 담았습니다.
- * 각자 능력과 형편에 맞는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마음먹는 데 그치지 않고 작은 활동이라도 몸으로 실천하시기를 권합니다.
- * 본당의 지인들과 모임을 이뤄 신앙 길잡이 활동을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 안내서 뒤쪽에 신앙 길잡이 활동 노트를 마련했습니다. 손자녀와 함께한 활동과 배운 점을 기록합니다.
- * 손자녀와 함께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활동, 다르게 해보고 싶거나 새로 발견한 활동을 주교회의 여성소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안내서를 보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내가 조금 더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이야말로 ‘코칭(Coaching)’이며, 이웃에게는 ‘선물’이 됩니다.

신앙의 길잡이,
할머니☆할아버지를 응원합니다!!

어린이들이 즐겨 듣고 읽는 동화에는 할머니☆할아버지가 자주 등장합니다. 외국 동화 『홀레 할머니』는 실타래를 찾아 신비로운 여행을 떠나게 된 소녀가 지혜로운 노파를 만나 여러 경험을 한 뒤 성장하여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동화에서 홀레 할머니는 어머니 대지, 예언자, 어머니 교회를 상징하며 주인공의 성장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플란더스의 개』는 어려서 부모를 잃은 손자 네로와 할아버지가 학대받던 개 파트라슈를 구출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빈곤한 조손가정’의 이야기지만, 이야기 속에 그리스도교 신앙과 더불어 인간과 동물, 자연과 예술(화가 루벤스의 그림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한국 전래동화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녹두 할아버지와 토끼』 등에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자연과도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일의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어린이들이 읽는 짧고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동화에는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우주 만물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인간의

소명을 응변하는 주제도 담겼습니다. 이런 내용이 할머니★할아버지들의 모습을 통해 자주 드러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교육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생 주기(life cycle)를 8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의 인생 과제와 미덕을 설명한 이론으로 유명합니다. 에릭슨에 따르면 노년기의 과제는 지금까지의 인생을 잘 갈무리하는 일이고, 그 과제를 수행하며 얻게 되는 미덕은 ‘지혜(wisdom)’입니다. 인생 여정에서 여러 성취와 굴곡 체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 할머니★할아버지의 내면에는 인생과 자연에 대한 깊은 지혜가 아로새겨져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노년기의 지혜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드러내는 생각과 말, 행동을 통해 다음 세대에 자연스레 전해집니다. 특히 집안 대대로 신앙을 이어온 사람이든 아주 최근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든, 그리스도교 신앙을 삶의 중심에 놓기로 선택한 할머니★할아버지는 다음 세대에 생활의 지혜뿐만 아니라 신앙의 지혜를 전수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배운 것이 많은 적든, 할머니★할아버지는 존재 자체로 다음 세대에 삶과 신앙의 유산을 전달할 교육자입니다.

라틴어로 ‘교육하다(educare)’와 ‘이끌다(decere)’의 어원은 같다고 합니다. 어원의 의미로 보면, 교육이란 교육받는 존재의 내

면에 담긴 본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탄생부터 성장해 가는 과정에, 손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할머니★할아버지는 직접으로든 간접으로든 자신의 생활경험과 신앙 유산을 손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에 바탕을 둔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좋은 것만 주시려는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삶으로 사는 일이야말로 손자녀에게 줄 최고의 사랑이며, 손자녀가 지닌 재능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힘이 됩니다.

“아이 하나를 잘 키우려면 마을 사람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는 인디언 격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가정에서부터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할머니★할아버지의 조력이 긴요합니다. 내 자녀는 처음 키워 보는 일이라 경험이 부족해서, 그때는 경제적으로 또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미처 할 수 없었던 활동도 할머니★할아버지가 된 지금 손자녀와는 좀 더 여유 있게 실천할 수 있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식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쏟고 싶어지는 손자녀에게 할머니★할아버지는 아마 더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손자녀와 좋은 신앙 체험을 함께 해나가는 일입니다.

손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작

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주교회의 여성소위원회에서 ‘손’자녀를 위한 ‘조’부모의 신앙 안내서, 『할머니☆할아버지는 신앙 길잡이』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내서는 조부모님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앙 안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젊은 부모님들께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별것 아니다 싶은 작은 활동이라도 손자녀와 함께 하면서 큰 기쁨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손자녀와 조부모가 나란히 걷는 모습에, 주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코헬렛 3,1).

There is an appointed time for everything,
and a time for every affair under the heavens.

할머니★할아버지의 수호성인 안나와 요아킴

예수님의 할머니☆할아버지인
안나와 요아킴 성인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안나와 요아킴의 삶은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루카 11,10)
라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감하게 합니다.

안나와 요아킴의 삶을 기억하며,
두 성인께 손자녀를 위한 전구를 청하도록 합시다.

성모 마리아의 부모님 성 요아킴(Joachim, 1세기경)과 성녀 안나(Anna, 1세기경)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가톨릭교회에서 위경으로 일컫는, 170~180년경 쓰인 「야고보 원복음서」에는 성모 마리아의 부모님 이름이 언급된다. 이 복음서에는 성모 마리아의 어린 시절과 부모님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성 요아킴은 가정이 운택하며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성녀 안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결혼한 이들은 오랫동안 자식을 얻지 못했다.

늙도록 아이를 낳지 못한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는 하느님께서 자녀를 내려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자녀를 내려주신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결심까지 했다. 어느 날 성 요아킴은 사람들과 함께 제물을 제단에 바치려고 예루살렘에 갔으나,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사장은 성전에서 그를 내쫓았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자식을 낳지 못해 하느님의 백성을 늘리지 못하는 것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자신의 제사가 거부당했고, 집에 가면 가족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할 것이 부끄러웠던 성인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양치기들과 함께 살았다.

얼마 후, 성 요아킴에게 천사가 나타나 “네 기도와 제물은 하느님께 전해졌다. 하느님은 네가 당한 모욕을 다 지켜보셨다. 사라가 아흔이 넘어서도 임신하였듯이 네 아내 안나도 마리아라 불리게 될 아이를 잉태하여 주님께 봉헌하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 예

루살렘의 황금 문에 가서 아내 안나를 만나 서로 기쁨의 재회를 나누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성녀 안나는 오랜 시간을 남편 없이 보내면서 아이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슬퍼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느님께 의탁했다. 이때 성녀에게 천사가 나타나, 남편 요아킴은 살아있으며, 지금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중이라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다. 또한 천사는 “너와 네 남편의 기도를 주님께서



는 들어주시고, 너에게 여자아이를 주실 것이니 아이의 이름을 마리아라 하여라. 너희들이 서원한 대로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어미의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모든 여인 가운데 가장 충만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성녀에게 예루살렘의 황금 문 앞으로 가면 남편 요아킴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림에서처럼 천사가 두 사람에게 알려준 대로 두 사람은 예루살렘의 황금 문으로 가서 서로 껴안는다. 성 요아킴이 성녀 안나를 껴안는 순간 그녀는 성령의 은총으로 마리아를 잉태한다(『황금전설』 중에서).

(출처: 가톨릭굿뉴스 성인 자료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기도문

(Catholic Grandparents Association in 2008)



PRAYER FOR GRANDPARENTS

Lord Jesus,
you were born of the Virgin Mary,
the daughter of Saints Joachim and Anne.
Look with love on grandparents the world over.
Protect them! They are a source of enrichment
for families, for the Church and for all of society.
Support them! As they grow older,
may they continue to be for their families
strong pillars of Gospel faith,
guardians of noble domestic ideals,
living treasuries of sound religious traditions.
Make them teachers of wisdom and courage,
that they may pass on to future generations the fruits
of their mature human and spiritual experience.

Lord Jesus,
help families and society
to value the presence and role of grandparents.
May they never be ignored or excluded,
but always encounter respect and love.
Help them to live serenely and to feel welcomed
in all the years of life which you give them.
Mary, Mother of all the living,
keep grandparents constantly in your care,
accompany them on their earthly pilgrimage,
and by your prayers, grant that all families
may one day be reunited in our heavenly homeland,
where you await all humanity
for the great embrace of life without end. Amen!



Benedictus II in

할머니☆할아버지를 위한 기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기도문)

성 요아킴과 성 안나의 딸,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주 예수님,
온 세상의 조부모들을 사랑으로 굽어보소서.
모든 가정과 교회, 모든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원천인
조부모들을 보호해주소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소서!
나이 들어서도 가정 내에서 튼튼한 신앙의 버팀목으로,
고귀한 이상의 수호자로,
건강한 종교적 전통의 살아 있는 보화가 되게 하소서.
지혜와 용기를 지닌 스승이 되게 하시어
성숙한 인간적, 영적 경험의 열매를
미래 세대에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
가정과 사회가 조부모들의 존재와 역할을
소중히 여기도록 도와주소서.
무시당하거나 소외되기보다
언제나 존경받으며 사랑 속에 머물게 하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여정 내내
평온하게 살아가며 어디서든 환대받게 하소서.
모든 생명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당신의 보호 아래 조부모들을 지켜주시고
지상 순례 여정에 동반해 주시고,
당신의 기도로 언젠가 모든 가족이
당신께서 모든 이를 영원한 생명으로 끌어안기 위해 기다리시는
천상 고향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 주소서. 아멘!

(번역: 주교회의 여성소위원회·서울대교구 노인사목부)



할머니☆할아버지는 신앙 길잡이

10가지 활동

1. 손자녀의 태교를 위해, 또 탄생을 축하하며 기도하기
2. 손자녀를 낳은 딸·며느리를 위해 영적·물적 선물하기
3. 손자녀에게 긍정의 언어 사용하기
4. 손자녀의 기념일 축하하기
5. 손자녀를 위해, 손자녀와 함께 기도하기
6. 손자녀와 다양하게 신앙 맛들이기
7. 손자녀에게 성경 읽어주기
8. 손자녀와 함께 미사 참례하기
9. 손자녀와 함께 순례·여행 다니기
10. 손자녀와 함께 이웃 사랑 실천하기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주교나 사제나 수도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덕은 일상생활과 거리를 두고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으로 살아가고 각자 어느 곳에 있든 날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고유한 증언을 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부름 받고 있습니다. 봉헌 생활자입니까? 자신이 봉헌한 대로 기쁘게 살아가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혼인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직장인입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형제자매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어머니나 아버지입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입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권위자입니까? 자신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동선을 위하여 일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14항)

활동
1

손자녀의
태교를 위해, 또 탄생을 축하하며
기도하기



①-1. 손자녀를 위한 태교, 탄생을 축하하며 기도하기

손자녀의 잉태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몸과 마음이 기도로 가득 차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생명을 선물로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아이를 잉태한 부부와 아기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태아의 수호성인 (또는 어머니의 수호성인)이라 일컬어지는 잔나 베레타 몰라(Gianna Beretta Molla)를 소개합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내과 의사였던 잔나는 자신의 직업을 하느님께서 주신 하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가톨릭 운동에서 너그럽고 편견이 없는 마음으로 훨씬 더 많은 봉사를 하였으며, 어머니와 아기 그리고 노인과 가난한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았습니다.

1961년 9월, 네 번째 임신을 한 지 두 달이 막 지날 무렵 잔나는 자궁 안에서 섬유종을 발견했습니다. 섬유종을 치료하려면 외과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수술이 태아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며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출산이 임박하였을 때 잔나는 담당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날 아기와 나 가운데 한 사람밖에 살릴 수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이를 살려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1962년 4월 21일 아침, 잔나는 마침내 잔나 엠마누엘라(Gianna Emanuela)를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모 잔나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4월 28일,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온 힘을 다해 외치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제44차 UN총회에서 선포한 ‘세계 가정의 해인 1994년 4월 24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잔나 베레타 몰라를 복자로 선포하였고, 2004년 5월 16일에 그녀를 시성하였습니다. 시성식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녀 잔나 베레타 몰라는 처음에는 미미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녀가 우리에게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의 전령사로서 얼마나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긴 인물이었는지 점점 더 드러납니다. 결혼을 며칠 앞두고 미래의 남편이 될 사람에게 성녀가 쓴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영혼 안에 심어주신 가장 아름다운 감성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요한 13,1)라고 사도 요한이 강조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에 따라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이 거룩한 여성은 혼인 성사 때 자신이 한 서약을 충실히 지키고자 영웅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성녀는 하느님과 타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고스란히 내어놓을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온전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생명을 바친 극단의 희생으로 증언합니다.

성녀 잔나 베레타 몰라가 보여준 모범을 따라,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순수하고 정숙하며 결실이 가득한 부부 사랑을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처: 가톨릭굿뉴스 성인 자료실)

아기의 잉태와 탄생을 축하하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 기도문을 함께 만들어봅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마음을 한 마디씩 글귀로 보태어 가족 기도문을 만든다면, 아기의 성장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몇 개의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기도문도 좋지만, 조부모가 자기 나름의 멋진 기도문을 만들어 적어두고 기도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서울대교구 사목국 홈페이지에서도 아기의 잉태를 기원하고,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내용을 담은 기도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갓난아기를 위한 기도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아기를 기쁘게 맞이하면서
당신 은총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아기가 저희와 세상에 생기를 북돋아주는
당신의 거룩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비오니, 이 아기를 맡아 키우는 저희에게
힘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아기로 인하여 저희 사랑이 더욱 커지게 하소서.
비오니, 부모의 품 안에서 세상을 안전한 곳으로 느끼며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감 있는 아이로 크게 하시고
자연을 호홉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도우소서.
이 아기는 사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사랑을 키우고
그 사랑을 전하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이 아기가 호홉할 때마다
저희로 하여금 당신의 기운을 느끼게 하시고
저희의 보살핌 안에서
이 아기가 당신의 숨결 또한 느끼도록 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상봉, 『가족을 위한 축복의 기도』)

十 태아 ♥ 엄마 ♥ 아빠를 위한 기도

주님, 생명 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이 생명으로의 초대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알게 하소서.

엄마 아빠가 먹고 마시는 음식과 물,

숨 쉬는 호흡, 느낌과 마음이

늘 태아와 함께 함을 깨닫게 하소서.

아기를 위해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며

참된 것을 말하는 엄마가 되게 하시고,

아기와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배려와 책임감을 갖는 아빠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성가정을 이루고

새 생명 탄생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교회의 여성소위원회 창작 기도문)

十 생명을 위한 기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주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그릇된 가치관과 교만한 마음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만함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세상 모든 이가 깨닫게 하소서.
저희에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복돋아주시고
생명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진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인준)

①-2. 잉태 축하 카드(conception greeting card) 만들기

잉태 축하 카드는 구입하여 사용할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조부모만의 독창적인 잉태 축하 카드를 만들어 SNS를 통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의 생일과 기념일을 축하하는 다양한 카드를 만들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부모들은 경험과 연륜은 풍부한 반면, SNS(Social Network System)를 활용하기 어려워하거나 번거로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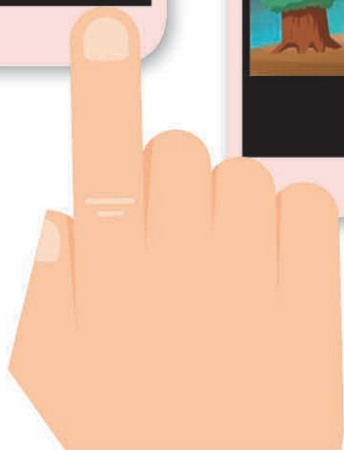
★ 앱(App) 활용하여 축하카드 만들기

1. 스마트 폰 Play 스토어 (또는 App 스토어)에서 <포토 문자 보내기>, <좋은 글귀 보내기> 등의 앱을 찾아 설치합니다.
2. 마음에 드는 사진이나 그림을 고르고, 자기만의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내용을 담아 카드를 만듭니다.
3. 카드를 받을 사람에게 선물로 전송합니다.



아래에 몇 개의 견본 카드를 소개합니다.

조부모 나름의 멋진 기도문을 넣어 카드를 보내봅시다.



활동 2

손자녀를 낳은 딸·며느리를 위해
영적·물적 선물하기



②-1. 손자녀를 낳은 딸·며느리를 위해 축하 인사 트리 꾸미기

잉태와 출산이 단순히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 사업임을 깨닫고, 아이를 건강하게 낳은 딸·며느리에게 성구나 정성을 담은 축하 인사를 전달합니다.

가족 모두의 마음이 담긴 성구나 축하 인사를 적어 축하 트리처럼 만들어 보낼 수 있습니다(옆의 견본 사진을 참조합니다).

연관된 활동으로 포스트잇(POST-IT)을 활용하여 축하 인사말 쓰기, 조부모가 소속한 본당 단체(레지오, 연령회, 시니어 학교 등)의 가까운 회원들의 기도를 모아 액자에 담아주기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성구 견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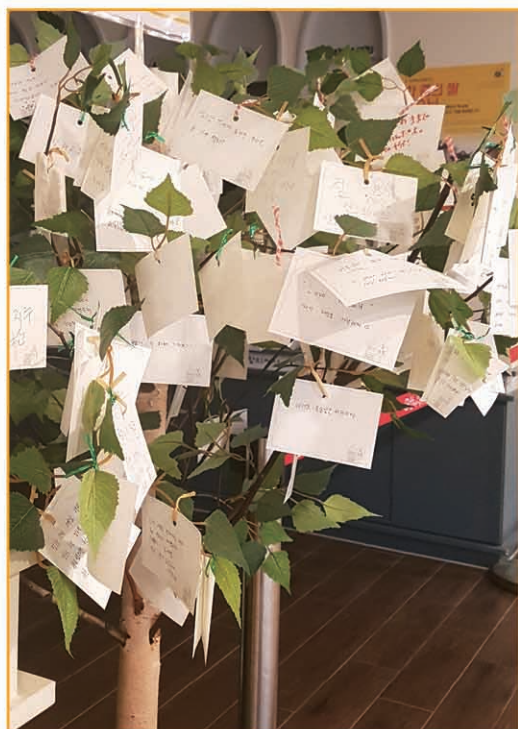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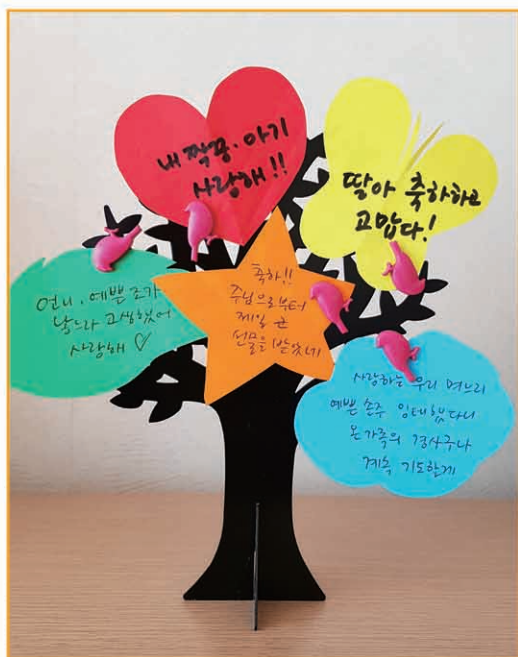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1코린 15,10).

성구 견본 2.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루카 15,6).

성구 견본 3.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시편 118,23).



②-2. 손자녀를 낳은 딸·며느리를 위해 '산 이를 위한 미사' 봉헌하기

건강하게 손자녀를 낳은 딸·며느리와 아기를 위해, 그리고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 이를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②-3. 손자녀를 낳은 딸·며느리를 위해 음식 장만해 주기

딸·며느리의 보양에 도움이 되는 요리를 손수 해 주거나, 임산부를 위해 좋은 음식을 장만하여 선물합니다.

②-4. 손자녀를 낳은 딸·며느리에게 선물상자(Gift Box) 보내기

최근에는 지자체마다 자녀를 출산한 여성에게 육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념품을 주기도 합니다. 이웃 공동체로부터도 선물을 받는데, 조부모들은 더 의미 깊은 선물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아기를 맞이한 가족들이 생활하는 데 보탬이 될 선물을 담은 상자를 전달해 봅시다. 값비싼 물건이 아니더라도, 손자녀의 건강한 탄생을 기다리던 조부모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예시

★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아기 축하 용품은
아래 3종류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수유용품 세트: 젖병, 젖병 소독기, 유축기 등
- * 건강용품 세트: 허리밴드, 산모의 건강 관리 용품 등
- * 외출용품 세트: 캐리어형 아기 띠, 포대기, 힙 시트 등

②-5. 손자녀의 탄생을 기념하여

타임캡슐(Time Capsule) 만들기

손자녀의 잉태 순간부터 탄생에 이르기까지 기념으로 간직한 물건들을 나만의 특별한 상자에 담아 보관해 둡니다. 할머니★할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기도문이나 손자녀에게 쓴 편지, 태어날 손자녀를 생각하며 쓴 자작 시나 노랫말, 조부모의 정성이 담긴 뜨개 작품, 공예품, 목공 작품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타임캡슐을 어느 시점에 열어볼지도 정해 두었다가 손자녀의 성장에 맞추어 개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②-6. 손자녀를 생각하며 필사한 '조부모의 성경'을 선물하기

손자녀의 잉태 소식을 들은 날부터 기도의 마음을 담아 성경쓰기를 시작해 보는 것도 뜻깊은 활동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어디부터 필사를 할지, 언제까지 할지, 어느 시점에 손자녀에게 전달할지 등은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본당 성물 판매소에서 구입한 성경 필사용 노트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활동
3

손자녀에게
긍정의 언어 사용하기



③-1. 긍정적인 소통을 위한 조부모 교육에 적극 참여하기

본당이나 교회 기관, 사회기관에서 진행되는 신앙교육, 소통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배우고, 배운 것을 생활에 적용합니다.

③-2. 감정 어휘 많이 사용하기

손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긍정적인 감정 어휘(기쁜, 상쾌한, 감동적인, 가슴 벅찬, 뿌듯한 등), 부정적인 감정 어휘(슬픈, 우울한, 불쾌한, 속상한, 가슴이 철렁하는 등)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감정을 표현해 봅시다.

다양한 감정 표현을 듣고 자란 손자녀는 사람들과 만나기를 즐기고,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용기 있는 아이로 성장합니다.

예시

★ 긍정적인 감정 어휘

기쁘다, 상쾌하다, 즐겁다, 후련하다, 행복하다, 흐뭇하다, 뿌듯하다, 고맙다, 자랑스럽다, 편안하다, 황홀하다, 설레다, 기분 좋다, 그립다, 유쾌하다, 뭉클하다, 만족스럽다, 반갑다, 안심이 된다, 신난다, 든든하다, 시원하다, 감동적이다, 경이롭다

★ 부정적인 감정 어휘

슬프다, 짜증스럽다, 외롭다, 우울하다, 불행하다, 속상하다, 불쾌하다, 답답하다, 화가 난다, 무섭다, 비참하다, 괴롭다, 당황스럽다, 허전하다, 피곤하다, 힘들다, 두렵다, 초조하다, 허탈하다, 불안하다, 서럽다, 섭섭하다, 혐오스럽다, 난처하다

㉓-3. 손자녀에게 존대어 사용하기

손자녀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가족들 서로 존대어를 사용하고, 아이와의 대화에도 존대어를 사용합니다. 아이는 존대어로 표현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존대어 사용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 상태일 때, 성인 가족 구성원들이 존대어를 사용하며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 준다면, 아이는 더욱 존중받는 느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예 시

우리 이제 손 씻고 밥 먹을까요?
할아버지랑 손잡고 같이 기도 바칠까요?
베드로, 유치원에서 뭐 하면서 즐겁게 놀았어요?
울리안나, 주일학교에서 예수님 만나고 왔어요?

㉓-4. 말머리 효과 활용하기

손자녀를 부를 때 이름 앞에 긍정적인 어휘를 붙여 봅니다.

예 시

사랑하는 소피아, 반찬을 골고루 먹는 요셉,
잘 웃는 모세, 놀고 와서 손을 씻는 데레사

긍정적인 말머리를 붙여 부르면 손자녀의 기분을 좋게 하여, 대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③-5. 몸으로 크게 반응하기

손자녀에게 긍정적인 말로 표현해 주는 일이 소중하지만, 말이 아닌 몸짓 언어(제스처)로도 긍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말과 더불어 제스처를 크게 해 주면 조부모의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활동
4

손자녀의
기념일 축하하기



4-1. 손자녀의 세례명을 정하고 그 의미 알려주기

손자녀 탄생 후, 가족의 큰 이벤트는 유아세례를 받는 일일 것입니다. 손자녀의 탄생일과 손자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례명을 선택해 봅시다. 조부모와 아기 부모가 함께 의논합니다. 손자녀의 세례명에 담긴 뜻을 기억해 두었다가 알려줍니다.

방법

★ 가톨릭굿뉴스(Goodnews) 활용하기

1. 인터넷 가톨릭굿뉴스에 접속합니다.
2. 바탕 화면에서 '성인'을 클릭하고 성인명 찾기에 해당 세례명을 입력합니다.
3. 해당 세례명에 더블 클릭을 하면 성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4. 탐색하신 후 손자녀에게 그 의미를 알려줍니다.

★ 스마트폰 앱 활용하기

1. 스마트 폰 Play 스토어 (또는 App 스토어)에서 가톨릭굿뉴스 앱을 찾아 설치합니다.
2. 가톨릭굿뉴스 앱에서 메뉴(MENU)를 클릭합니다.
가톨릭 성인의 축일을 클릭합니다.
성인 검색란에 해당 세례명을 입력하여 그 내용을 손자녀에게 알려줍니다.

★ **도서 활용:** 성인에 관한 서적을 구입하여 사용합니다.

④-2. 특별한 날에는 축복의 기도(안수) 해 주기

✦ 손자녀의 유아세례, 첫영성체, 세례식, 영명축일 때 축복의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
어린이들을 받아들이면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어린이들을 극진히 사랑하셨으니
이 어린이를(들을) 위하여 바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례의 은총으로 감싸주신 이 어린이를(들을)
끊임없이 보호하시어
이 어린이가(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자유로운 신앙으로
주님을 증언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굳건한 희망으로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축복 예식』,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十 세례 받지 않은 손자녀 생일 때 축복의 기도

축복의 원천이시며 어린이들의 수호자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자녀를 허락하시어
부부의 충만한 기쁨을 주셨으니
이 어린이를 인자로이 굽어보시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낳 이 어린이를
하느님의 양 떼에 받아들이시어
세례의 은총으로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저희와 함께 교회 안에서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축복 예식』,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생일을 맞은 아이를 위한 기도

오로지 사랑 때문에 움직이시는 하느님,
저희 ()가 그 사랑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음을
저희가 알고 저희 ()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저희 ()가 자라면서
세상의 따뜻한 온기를 맘껏 누리며
맑은 햇살을 받고 맑은 물을 마시면서
배우고 일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큰산을 오르며 나무를 끌어안고 강물을 바라보며
지혜를 얻고 사람들 사이에서 행복하게 하소서.
그래서 먼 훗날, 세상은 참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생명을 주신 당신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상봉, 『가족을 위한 축복의 기도』)



+ 아픈 아이를 위한 기도

아이들의 보호자이신 하느님,
이 아이의 숨결을 고르게 하시고
이 아이의 열을 내리게 하시며
이 아이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소서.
이 아이의 맑은 눈매를 기억하시어
이 아이의 맑은 눈을 되찾게 하시고
이 아이의 순진한 마음을 기억하시어
이 아이의 따뜻한 마음에 생기를 주소서.
이 아이가 외로울 때, 아이 곁에 앉아 계시고
이 아이가 속상할 때, 아이를 위로하소서.
이 아이의 아픔은 저희 아픔이오니
이 아이를 온전히 낫게 하시고
당신 사랑 안에서 언제나 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상봉, 『가족을 위한 축복의 기도』)

✦ 유아세례를 받는 아기를 위한 기도

저희 영혼을 깨끗이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
세상의 죄는 당신이 바라시던 것이 아님을
당신께서 아시고 저희도 압니다.
저희 죄를 씻고 또 씻어주기로 작정하신 하느님,
아기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기 위해
세례를 베푸시는 하느님, 저희 아기가
첫 세상을 맑은 눈으로 맞이하도록
일찌감치 세례를 베푸시는 하느님,
당신의 자비 안에서 아기의 영혼이 투명해지고
당신의 빛 가운데 아기가 자라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상봉, 『가족을 위한 축복의 기도』)



④-3. 유아세례·첫영성체·세례식·영명축일 때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축하해 주기

손자녀의 기념일을 맞을 때 온 가족이 참여하여 축하하고, 미사도 함께 드립니다.

특히 손자녀가 첫영성체 교리를 시작할 때, 첫영성체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와줍니다.

이탈리아의 성녀, 마리아 고레띠(Maria Goretti, 1890~1902, 1950년 6월 24일 시성)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가정 일을 도와야 했지만, 아버지의 정성으로 10개월이 넘는 첫영성체 교리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영하는 기쁨을 누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리아 고레띠 성녀의 아버지처럼, 손자녀가 첫영성체를 즐겁고 성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부모가 관심을 갖고 마리아 고레띠 성녀께 전구를 청합시다.

④-4. 손자녀에게 맞는 성구 정하기

특별한 날을 맞이하는 손자녀가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의 길잡이가 되는 성구를 예쁜 카드에 적어 선물합니다.

예시

“일어나 비추어라”(이사 60,1).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마태 5,13).

: 손자녀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대로”(마태 26,42).

: 손자녀가 하느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기뻐하며
충실히 살아가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활동
5

손자녀를 위해,
손자녀와 함께 기도하기



㉟-1. 손자녀의 취침 전후, 십자고상, 성모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기

조부모가 손자녀를 보살피는 경우나 손자녀가 잠깐 다니러 온 경우에도 잠들기 전이나 잠에서 깨어났을 때 손자녀를 데리고 십자고상이나 성모상 앞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도나 성모님의 기도를 바쳐도 좋고, 자유 기도도 좋습니다.

+ 봉헌 기도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뻐 여기시어 받아주소서.
아멘.

(『가톨릭 기도서』)

+ 성가정에 드리는 기도

예수, 마리아, 요셉이시여,
성가정 안에서 저희는
참사랑의 빛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가정을 향합니다.

나자렛의 성가정이여,
저희 가정도
친교와 기도의 자리,
복음의 참된 학교,
작은 가정 교회가 되게 해 주소서.

나자렛의 성가정이여,
다시는 가정들이
폭력과 배척과 분열을 겪지 않게 해 주소서.
상처받거나 걸려 넘어진 모든 이가
어서 빨리 위안과 치유를 찾게 해 주소서.

나자렛의 성가정이여,
가정의 거룩함과 불가침성,
하느님 계획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저희가 깨닫게 해 주소서.

예수, 마리아, 요셉이시여,
저희의 기도를 자비로이 들어주소서. 아멘.

(교황 프란치스코, 『사랑의 기쁨』)



㉔-2. 식사 전·후 기도 때 세례명을 부르며 기도하기

+ 식사 전 기도

-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 음식과 (손자녀 이름),
그리고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가톨릭 기도서』)

+ 식사 후 기도

-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와 (손자녀 이름)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 아멘.
-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 ◎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 아멘.

(『가톨릭 기도서』)

⑤-3. 가족들의 생일, 영명축일 등, 가족 모임 때 손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손자녀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에 이르면,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손자녀의 이름과 세례명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자기 이름과 세례명이 기도에서 불렸을 때 손자녀는 소속감과 더불어 특별한 기도를 받았다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주 기도를 받은 아이는 가족 모임에서 스스로 기도를 바치는 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아이에게 기도 인도자 역할을 맡겨봅시다.

+ 자녀를 위한 기도

-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자녀 (손자녀 이름)를 주시어
창조를 이어가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를 길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 주님, 사랑하는 저희 자녀 ()를 은총으로 보호하시어
세상 부패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온갖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가톨릭 기도서』)

⑤-4. 가정의 제사나 차례 때 손자녀에게 촛불 켜고 끄게 하기

어린 손자녀는 가정의 이벤트 무엇에든 참여하고 싶어 하므로 가정의 제사나 차례 등, 가정의 여러 전례에 손자녀를 참여하게 하고, 촛불을 켜고 끄는 역할을 맡겨봅니다. 그 역할이 가정 전례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해줍니다.

⑤-5. 손자녀가 좋아하는 성가 불러주기·함께 부르기

방법

★ 가톨릭 홈페이지 굿뉴스(Goodnews)에서 가톨릭 성가 찾기

1. 컴퓨터나 스마트폰 앱으로 가톨릭굿뉴스(Goodnews)를 찾아 들어갑니다.
2. 가톨릭굿뉴스 상단 메뉴에서 가톨릭정보를 누르고, 그 다음 성가를 클릭합니다.
3. 성가의 번호와 제목을 모르더라도 성가의 첫 소절만으로 검색할 수 있고, 단성·혼성 악보, 반주, 전곡 듣기도 가능합니다.

손자녀와 함께 쉽게 부를 수 있는 성가 몇 곡 소개합니다.



가톨릭성가 402. 세상은 아름다워라

오 아름다워라 찬란한 세상 주님이 지었네.

오 아름다워라 찬란한 세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1. 온 세상 만민이여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 찬양하여라.

2. 해와 달과 별들이여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영원하심을 높이 찬양하여라.

3. 눈과 비와 우박들도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엄위하심을 높이 찬양하여라.

4. 바다 속의 고기들이여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전능하심을 높이 찬양하여라.

5. 높은 산과 언덕들도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오묘하심을 높이 찬양하여라.



가톨릭성가 414.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1.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2. 우리 서로 사랑한다면 하느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3.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 안에 있으며 하느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4.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바치셨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성가 421.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1.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 속을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2번)
2. 나는 진리의 샘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평생 목마르지 아니하고
진리의 샘을 만날 것입니다. (2번)
3. 나는 구원의 길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헛된 수고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을 찾을 것입니다. (2번)

㉟-6. 어린이집, 유치원, 외출할 때 손자녀에게 기도하게 하기

손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새로운 하루를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나가기 전에 성호를 긋고 기도하게 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의 등원을 보살피는 경우, 함께 소리 내어 기도합니다.

현관에 성수 그릇을 마련하고 집을 드나들 때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성수를 찍고 성호를 긋습니다. 성수는 본당에서 떠 갈 수 있으며, 성수 그릇은 본당 성물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성수기도

주님, 이 성수로 세례의 은총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가톨릭 기도서』)



⑤-7. 본당 사제·수도자의 축일을 기억하고
손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기

+ 사제들을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 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축성하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 아멘.

(『가톨릭 기도서』)

+ 수도자들을 위한 기도

- 세례성사의 은총을 더욱 풍부하게 열매 맺도록
자녀들을 수도자의 길로 부르시는 하느님,
수도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고
오랫동안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봉헌하는 삶이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 하느님,
수도자들이 성령께 온전히 귀 기울여
복음의 증거자로서 정결과 청빈과 순명의 삶을 살게 하시어
자유로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가톨릭 기도서』)

활동
6

손자녀와
다양하게 신앙 맛들이기



⑥-1. 성가 함께 부르기

손자녀와 함께 성가책에 들어 있는 성가를 자주 불러봅니다.
아래 두 곡을 견본으로 씁니다.



가톨릭 성가 435. 어린이처럼

1. 즐겁게 노는 어린이처럼 푸르른 하늘 우러러보며
이 세상 근심 잊어버리고 꿈속에서 살리라.
하느님 보소서 천진한 어린이처럼
티 없이 기쁘게 주님께 왔나이다.
2. 아버지 믿는 어린이처럼 어디를 가든 두려움 없이
눈비가 내린 곳은날에도 기쁨 속에 살리라.
하느님 보소서 천진한 어린이처럼
티 없이 기쁘게 주님께 왔나이다.
3. 잘못을 깨친 어린이처럼 용서받을 확신을 갖고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모든 고백하리라.
하느님 보소서 천진한 어린이처럼
티 없이 기쁘게 주님께 왔나이다.



가톨릭 성가 400. 주님과 나는

1. 주님과 나는 함께 걸어가며 지나간 일을 속삭입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 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2번)
2. 주님과 내가 함께 걸어갈 때 천국의 일을 말해 줍니다.
이 세상 꿈이 모두 사라질 때 천국의 영광 보게 되리라. (2번)
3. 험하고 먼 길 주님 함께 가며 생명의 친구 되었습니다.
잠시의 세상 충실하게 살아 영원한 세상 얻으렵니다. (2번)

㉞-2. 가정에서 손자녀를 위한 발씻김 예식을 실천하기

예수 부활 대축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을 손자녀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대축일 전례의 중요성을 배우게 합니다. 특히 성목요일 발씻김 예식에 함께 참여한 뒤, 가정으로 돌아가 손자녀에게 발씻김 예식을 실천해 봅니다. 발을 닦아주며 예수님께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을 때의 마음을 헤아려봅니다. 또 손자녀에게 발이 건강해야 씩씩하게 다닐 수 있으니 발을 소중하게 다루자고 약속합니다.

존중을 받은 손자녀는 이어 조부모의 발을 닦아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조부모와 손자녀가 서로의 발을 마사지해 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⑥-3. 성물 수건을 따로 마련하여 손자녀와 함께 성물 깨끗하게 닦기

해마다 부활시기와 성탄시기를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손자녀와 함께 성물 특히 십자가, 예수님 고상, 성모님상을 깨끗이 닦습니다. 십자가와 예수님 고상, 성모님상, 그리고 깨끗한 천을 준비합니다.

부활시기에는 부활시기의 의미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성탄시기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주며 성모님의 삶을 들려줍니다. 성물을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의미를 실천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⑥-4. 조부모가 어린 시절에 했던 놀이를 손자녀에게 가르쳐주기

윷놀이, 공기놀이, 딱지치기, 팽이치기, 연날리기 등, 전통놀이에 대해 알려주며, 현재의 놀이나 도구와 어떻게 같고 다른지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탈춤, 사물놀이, 마당극 등을 같이 보러가도 좋습니다.

손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조부모에게 다시 어린아이가 된 듯, 자유롭고 흥겨운 기쁨을 느끼게 해 줄 것입니다.

활동
7

손자녀에게
성경 읽어주기



7-1. 손자녀에게 성경 읽어주기

손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 가장 쉬우면서도 중요한 활동은 성경 읽기입니다. 동화든 성경이든 손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 어떻게 읽어주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내용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가는 조부모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깊은 성찰 했는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 내용을 읽어주는 일에 그치지 않고, 읽은 내용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면서 손자녀와 성경에 담긴 하느님의 말씀과 인간의 다양한 성장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그러려면 조부모가 먼저 성경을 가까이 두고 자주 읽고 성찰하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예시

★ 손자녀에게 읽어주기 좋은 어린이 성경을 소개합니다.

- 1) <온 가족이 함께 읽는 성경 동화> 시리즈(아래 참고용 사진) 대 구대교구 김종섭 신부님(소람상담소장)과 청소년국이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눈높이 교리교육을 위해 개발된 성경 동화입니다 (총 10권, 각 12,000원).



8절 도화지 크기로 앞면에는 그림, 뒷면에는 성경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동화 구연하듯이 읽어주도록 책 뒷편에 활용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10권이 나온 상태인데, 앞으로 구약과 신약 20권씩 총 40권의 성경 동화를 출간한다고 합니다(문의: 대구대교구 청소년국 053 250 3066).

2) 생활성서사와 바오로딸 출판사에서 나오는 어린이 그림 성경이나, 만화로 된 다양한 어린이 성경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손자녀와 같이 서점에 가서 손자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7-2. 손자녀와 함께 성경 필사하기

조부모와 손자녀가 성경의 한 부분을 선택하여 성경 필사를 이어갑니다. 성경의 어디를 선택할지, 어느 정도 필사할지 함께 의논합니다. 필사한 내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도 좋습니다.

성경 쓰기 책자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7-3. YOUCAT(가톨릭 청소년 교리서) 같이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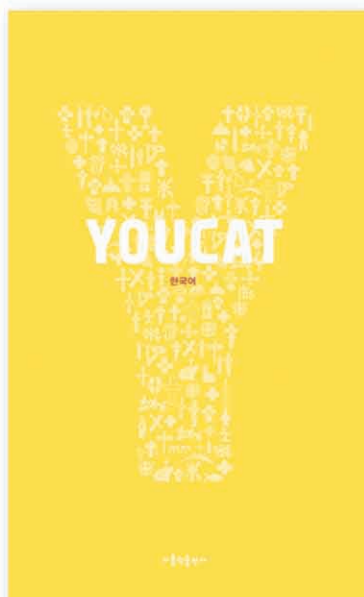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공식 가톨릭 청년 교리서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전 세계 청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교황청 신앙교리성에서 ‘신앙의 해’ 추천 도서로 지정한 책이기도 합니다.



교리에 관한 527가지의 질문과 그에 답하는 형식의 대화체로 구성되어 쉽게 가톨릭 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젊은이의 감각과 눈높이에 맞는 어휘와 표현, 감각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이 담겨 있고, 가장자리에 성경 구절, 성인이나 교부의 말씀, 유명 저자의 격언이나 저서의 인용문 등이 실려 있는 신선한 교리서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부터 어르신 예비 신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어서, 청소년기에 이른 손자녀가 재미있게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먼저 읽은 뒤 손자녀에게 권하여, 신앙을 더욱 깊게 하고, 하느님 사랑을 발견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손자녀와 함께
미사 참여하기



⑧-1. 매일 미사 다닐 때 손자녀 데리고 다니기

조부모에게 매일 미사는 하루 생활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소중한 활동입니다. 손자녀를 보살피는 조부모나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다니러 왔을 때, 손자녀를 데리고 미사에 가도록 합니다.

손자녀와 함께 하는 미사는 어려서부터 미사 참례를 중요한 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먼저 조부모가 매일 미사 참례를 일상의 중요한 활동으로 여기면 좋겠습니다.

⑧-2. 손자녀와 어린이 미사 함께 드리기

어린이 미사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손자녀가 미사에 가기 전에 복음을 한번 미리 읽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어도 좋습니다.

⑧-3. 어린이 주보 함께 읽기



교구마다 다양한 제목으로 나오는 어린이 주보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린이 주보에는 아이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성경 퀴즈나 퍼즐 등이 담겨 있는데, 그런 내용도 함께 풀어봅니다.

⑧-4. 미사 가기 전, 손자녀에게 미사의 복음 말씀을 읽고 설명해 주기

성인을 위한 미사를 함께 드리러 가거나, 손자녀들이 어린이 미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미사의 복음 말씀을 읽어주며 조부모님과 손자녀가 미사에 참여하는 마음가짐을 다져봅니다.

손자녀가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복음 말씀을 미리 읽고 준비하는 일은 손자녀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활동
9

손자녀와 함께
순례·여행 다니기



9-1. 손자녀와 성지 순례하기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지난 2011년도에 전국 천주교 성지와 도보 순례 정보를 망라한 『한국 천주교 성지 순례』를 발행하여, 2019년 현재까지 꾸준히 내용을 보완하여 펴내고 있습니다 (2019년 개정증보판, 본당 성물 판매소에서 구입 가능).

핸드북에는

- 전국 성지 167곳의 소개문과 사진, 위치 정보와 인근 지역 지도
- 성지별 고해성사, 미사 시간 안내
- 순례 확인란과 ‘순례를 마치며’ 메모란을 수록하였습니다.

『한국 천주교 성지 순례』를 기획, 발행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순교자현양과 성지순례사목 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이 책자가 신앙선조들의 믿음과 삶을 묵상하는 순례에 좋은 길잡이가 되고, 우리가 걷는 순례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심했으면 좋겠다”라고 발행 취지를 밝혔습니다. 핸드북에 있는 순례 확인란에 모두 확인을 받은 순례자에게는 축복장을 수여합니다.

손자녀와 함께 가기 좋은 순교 성지 몇 곳 소개합니다.



주교회의 순교자현양과 성지순례사목 위원회

한국 천주교 성지 순례



〈한국 천주교 성지 순례〉 핸드북

서울대교구,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 성지



성지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 성지

서울시 중구 필동로 5
T : 02-3947-2401 · F : 3947-2406
<http://www.gablgwon.or.kr>

연세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월-금: 오전 11시
토: 오전 11시, 오후 3시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오전 9시 30분~오후 5시(월요일 휴관)

서소문 밖 네거리 성지는 조선 시대 공식 사행 집행장으로, 사직단 서쪽에 치형장을 두어야 한다는 '예기'의 가르침과 최종 사행 관점을 내리는 형조나 의금부와 그리 멀지 않다는 편의상,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잘래 시장'이 있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부분의 치형이 이루어지던 곳이다.

1801년 신유박해 이래 이 곳에서 순교한 신자들은 신원이 확인된 이만도 100여 명이 된다. 이 가운데 44위가 시성되었는데 단일 순교지로는 성인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이다. 대표적인 인물로 장희상 비오로와 김효임 골롬바, 김효주 아네스 성인 등이 있다. 또한 2014년 지복원 순교복자 124위 가운데 27위가 서소문 밖 네거리에서 순교하였다.

한국 최초의 현대 아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순교자의 시복을 추진 중에 있다. '하느님의 종' 133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자인 이승훈 베드로와, 신유박해 때 '백시'를 작성한 황사영 알렉시오를 비롯하여 서소문 순교자 6위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서소문 밖 네거리 성지를 내려다보는 언덕에 한국 최초의 서양식 벽돌 교회 건축물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사적 제252호, 중림동 약현성당이 서소문 성지 기념 성당으로 자리 잡고 있다.

순례일	년	월	일
확인			

순례를 마치며

26 서울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 성지는 단일 순교지로는 성인을 가장 많이 배출한 성지로, 1801년 신유박해 이래 이 처형장에서 순교하신 분은 신원이 확인된 이만도 100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44위가 시성되었다.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 성지를 내려다보는 언덕에 한국 최초의 서양식 벽돌 교회 건축물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사적 제252호), 중림동 약현성당이 서소문 성지 기념 성당으로 자리 잡고 있다.



종로구 서린동 동아일보 사옥 앞, 옛 포도청 자리는 1839년 기해박해, 1846년 병오박해, 1866년 병인박해 때 붙잡혀 심문을 당하거나 순교한 성인들이 많은 자리로 알려진 곳이다. 103위 성인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성 유대철 베드로(1827~1839년)도 이곳에서 순교했다고 알려진다.

유대철은 유진길의 아들로 1839년 기해박해로 많은 교우가 체포되어 순교하는 것을 보고 순교를 결심하여 자수하였다. 포도청에서 13세의 어린 나이로는 견디기 힘든 형벌과 고문을 받았는데, 허벅지의 살을 뜯어내며 “이래도 천주교를 믿겠느냐?”고 으름장을 놓는 형리에게 “믿고말고요. 그렇게 한다고 제가 하느님을 버릴 줄 아세요?”라고 대답하였다. 고문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유대철은 언제나 평화롭고 기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성지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5
전화 02)3147-2401 팩스 02)3147-2406
www.yakhyeon.or.kr

미사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월~금: 오전 11시
토: 오전 11시, 오후 3시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관람시간: 오전 9시 30분~오후 5시(월요일 휴관)

전주교구, 전동 순교 성지



성지

전동 순교 성지

전북 전주시 완안구 대포로 51
T : 063284-3222 F : 282-6232
<http://www.jeondong.or.kr>

미사
주일: 오전 5시 30분, 9시, 10시 30분
오전 5시, 8시
월-금: 오전 5시 30분
토: 오후 7시 / 수-금: 오전 10시
토: 오전 5시 30분, 오후 4시, 6시
고해참사: 월요일 16시 주일
피정: 가톨릭(복자 일회)

전동 성당을 세운 모두네 신부는 처음에 이곳이 순교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성당을 세웠지만, 이곳에 성당이 세워진 것은 하느님의 섭리였다. 처음에는 전주 요목대에 성당을 세울 계획을 세웠는데, 유림들의 반발을 우려한 위월 주교가 옮길 것을 건의해서 지금 자리에 성당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전동 성당은 한국 전주교구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과 권상연이 신해박해(1791년) 때에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유교식 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를 불태운 진산 사건으로 순교한 자리에 세워진 성당이다.

또한 '호남의 사도'로 불린 유창림과 김유산 등이 순교한 곳이자 유창림의 아우 유관림이 성직자 명임을 위해 복경 주교에게 서약의 큰 배를

조선에 불고 와 달라고 요청한 '대박청' 사건을 일으킨 죄로 처형된 곳이다.

전주 중앙 성당이 세워지기 전까지 전주교구 주교좌성당이었던 원동성당은, 전주성 성벽을 뚫어 낸 원동성당 주춧돌을 세웠고, 벽돌은 중국인 기술자들이 직접 구워 낸 것을 사용하였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서양식 건물로 국가 지정 사적 제288호로 지정되어 있다.

순례일	년	월	일
확인			

순례를 마치며

전주 189

전주 한옥 마을이 관광지로 알려지고, 드라마 촬영 장소로 활용되면서 더욱 유명해진 전동성당. 전동성당을 세운 모두네 신부도 이곳이 순교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성당을 지었다고 한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과 권상연이 신해박해(1791년) 때에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유교식 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를 불태운 진산 사건으로 순교한 자리에 세워진 성당이 전동성당이다.



전동성당은 전주성 성벽을 헐어 낸 돌로 성당의 주춧돌을 세웠고, 벽돌은 중국인 기술자들이 직접 구워낸 것을 사용했다고 한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서양식 건물로 국가 지정 사적 제288호로 지정된 건물이다.

옆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주교구에는 전동성당을 중심으로 걷거나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순교 성지가 즐비해 있다. 김대건 신부가 중국에서 사제가 되어 조국으로 돌아와 첫발을 내디딘 나바위 성지, 수많은 성인이 치명한 숲정이 성지, 치명자산 성지로 이어지는 성지 순례를 계획해 보자.

성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
전화: 063)284-3222 **팩스:** 063)282-6232
www.jeondong.or.kr

미사 주일: 오전 5시 30분, 9시, 10시 30분, 오후 5시, 8시
월~금: 오전 5시 30분
화~목: 오후 7시 / 수·금: 오전 10시
토: 오전 5시 30분, 오후 4시, 6시

고해성사 평일 미사 전후

피정 가능(예약 필요)

제주교구, 용수 성지

(성 김대건 신부 제주 표착 기념 성당)



순교 사적지

용수 성지
(성 김대건 신부 제주 표착 기념 성당)



제주도 제주시 한림면 용수 1길 108
T : 0643772-1252
<http://kimdaegun.net>

미사
주일: 오후 8시
월: 오후 6시
성 김대건 신부 제주 표착 기념성당
관람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제주시 한림면 용수리 해안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중국 상해를 출발하여 서해로 귀국하다가 표착한 곳이다.

김대건 신부는 1845년 8월 17일 중국 상해에서 한국인 최초로 사제품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8월 31일 제마을 주교와 다블뤼 신부 등 일행 13명과 함께 '다파엘로'를 타고 귀국하던 중 큰 폭풍우를 만나 표류하다가 9월 28일 이곳 용수리 해안에 표착하였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일행은 용수리 해안에서 고국에서의 감격 어린 첫 미사를 봉헌하고, 배를 수리한 후 이곳을 떠나 금강 하류인 전라북도 나바워로 상륙하여 귀국하였다.

김대건 신부는 경기도 용인에서 사목 활동을 하다가 1846년에 제로

되어 후작한 고문을 받고, 그해 9월 새남터에서 군문포수행으로 순교하였다. 그해 그의 나이는 25세였다.

제주교구는 김대건 신부의 선교 열정과 순교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1999년 9월 19일 용수리 표착을 성지로 선포하고, 여기에 김대건 신부 제주 표착 기념 성당과 기념관을 건립하였으며,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다파엘로'를 복원하여 전시하고 있다.

순례일	년	월	일
확인			

순례를 마치며

200 제주

아름다운 제주도는 주로 천혜의 자연명소를 관광하는 데 그치기 쉬운데, 한번쯤 손자녀와 함께 제주도 여기저기 흠어져있는 성지를 돌아보는 것도 멋진 순례 여행이 될 것이다.

제주시 한림면 용수리 해안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중국 상해에서 출발하여 서해 바닷길로 귀국하다가 표착한 곳이다. 김



대건 신부는 1845년 8월 17일 중국 상해에서 한국인 최초로 사제품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8월 31일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 신부 등 일행 13명과 ‘라파엘 호’를 타고 귀국하던 중 큰 폭풍우를 만나 표류하다가 9월 28일 이곳 용수리 해안에 표착했다.

김대건 신부 일행은 고국에서의 감격 어린 첫 미사를 용수리 해안에서 봉헌하고, 배를 수리한 뒤 이곳을 떠나 전라북도 금강하류 나바위로 상륙하여 귀국했다.

제주교구는 1999년 9월 19일 용수리 포구를 성지로 선포하고, 여기에 김대건 신부 제주 표착 기념 성당과 기념관을 건립했으며,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라파엘 호’를 복원하여 전시하고 있다.

성지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1길 108
전화 064)772-1252
<http://cafe.daum.net/St.FatherKimDaeGun>

미사 주일: 오후 8시
화: 오후 8시

성 김대건 신부 제주 표착 기념관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2. 손자녀와 함께 걷기

한강 둔치, 남산 성곽길, 북한산 둘레길, 제주 올레길 등, 거주지 동네 주변에 조성된 걷기 좋은 길이나, 전국적으로 유명한 둘레길 등을 손자녀와 같이 걸어봅시다.

길을 따라 걸으며 길 주변에 피어 있는 들꽃의 이름도 알려주고, 조부모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3. 철 따라 여행하기

조부모가 즐기는 낚시 여행이나 등산에 손자녀를 데리고 가거나 철 따라 마련되는 지역 축제, 과수원 과일 따기 체험활동 등에도 조부모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4. 조부모의 안전 운전을 위해 기도하기

손자녀와 차량에 동행하여 외출할 때 함께 성호를 긋고 주모경을 바칩니다. 조부모가 운전할 때 늘 같은 기도문을 바치는 것도 좋지만 조부모의 특별한 기도문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손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안전 운행을 기원하는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거나, 조부모님이 만든 짧은 기도문을 차량에 비치해 두었다가 읽게 합니다.

활동
10

손자녀와 함께
이웃 사랑 실천하기



⑩-1. 손자녀와 함께 이웃을 위한 후원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어려서부터 우리 각자가 이웃과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생활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먼저 거리에서 만나거나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말이나 생각에 그치지 않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어떤 방법으로 실천하면 좋을지도 함께 의논합니다.

예시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생애 첫 기부하기’,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사회복지)에 기부하기,
해외원조기관(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 등)을 통해
빈곤 아동 돕기

⑩-2. 환경생태·인성·생활교육을 신앙과 연결시키기

물, 전기 등 생활자원 절약하기, 일회용품(플라스틱 용품) 사용 줄이기, 손수건 사용하기, 소중한 나의 몸에 대해 알기, 공공장소에서 바르게 행동하는 예의 배우기 등, 손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 동안 배우고 익힐 활동은 아주 많습니다.

⑩-3. 손자녀와 함께 식물이나 동물 보살피기

어려서부터 살아있는 동·식물을 보살피고 성장하게 돕는 활동은 손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다양한 자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강화하며,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배우게 합니다.

+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 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의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교황 프란치스코 『찬미받으소서』)



‘손’자녀를 위한 ‘조’부모의 신앙 안내서 본당 모임에서 활용하기

- * 신앙 안내서는 혼자서도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지만,
이웃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손자녀가 있는 조부모,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3~4명 정도로 모임을 구성합니다.
- * 모임 구성원들과 1~2주 간격으로 모여
안내서에 실려 있는 활동 가운데 어떤 활동을 실천했는지,
실천한 뒤 느낀 점이나 배운 점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합니다.
더 새롭게, 다르게 할 수 있는 활동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 * 실천한 활동을 신앙 길잡이 노트에 기록합니다.
노트 활용 예를 소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트를 12쪽 정도 추가했으니, 복사하여 사용합니다.

신앙 길잡이 노트 - 작성 사례 1 (할아버지)

행동한 날짜	2019년 3 월 ○ 일 (목)
혼자 / 함께	혼자
활동 내용	손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준비물	
활동 세부 기록	혼인한 지 2년 된 딸에게 첫 손주의 임신 소식을 들었다. 젊은 시절 내 딸을 임신했을 때와는 또 다른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딸과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를 하고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지금까지도 꾸준히 기도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태중의 손주를 생각하며, 또 손주를 맞이하는 나와 온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가족을 보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다.
활동하며 배운 점	1.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도하니 내가 선택한 행동에 든든한 힘이 느껴지고, 실천해야겠다는 결심도 강해진다. 2. 노트에 메모를 하니 생활기록도 되고 좋다. 3. 기도의 힘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 같아 기대된다.
추가 아이디어	기도를 하고 나서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필사해 보겠다.
기타	

신앙 길잡이 노트 - 작성 사례 2 (할머니)

행동한 날짜	2019년 7 월 ○ 일 (토)
혼자 / 함께	외손녀, 딸, 사위와 함께
활동 내용	손녀에게 성경을 옛날이야기처럼 풀어서 이야기해 주기
준비물	
활동 세부 기록	딸 내외가 주말에 교외에 있는 맛집에 가서 외식을 하려고 해서 승용차로 갔다. 5살짜리 외손녀와 내가 뒷좌석에 탔는데, 손녀가 지루해해서 할머니가 옛이야기를 해주마 하니, 좋다고 한다. ‘옛날 옛적에...’로 시작하여 에덴동산의 창조 이야기,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손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도 하는 등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어 나도 신이 났다. 운전하는 사위의 얼굴에 잔잔히 미소가 번지는 것도 기분 좋았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이 식당에 도착해서 밥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활동하며 배운 점	1. 성경 이야기를 손녀에게 들려줄 옛이야기로 만들어 말해 본 게 좋았다고 생각한다. 2. 앞으로 손녀가 또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할지 모르니,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려면 성경을 꼼꼼히 다시 읽어야겠다. 3. 노트에 메모를 하니 뭘 잘했고, 뭘 다르게 해볼 수 있을지 정리가 되어 좋았다.
추가 아이디어	서점에 가서 성경 동화를 찾아 읽어봐야겠다.
기타	손녀에게 성경 동화를 한 질 사주고 싶다.

신앙 길잡이 노트

행동한 날짜	
혼자 / 함께	
활동 내용	
준비물	
활동 세부 기록	
활동하며 배운 점	
추가 아이디어	
기타	

신앙 길잡이 노트

행동한 날짜	
혼자 / 함께	
활동 내용	
준비물	
활동 세부 기록	
활동하며 배운 점	
추가 아이디어	
기타	

신앙 길잡이 노트

행동한 날짜	
혼자 / 함께	
활동 내용	
준비물	
활동 세부 기록	
활동하며 배운 점	
추가 아이디어	
기타	

신앙 길잡이 노트

행동한 날짜	
혼자 / 함께	
활동 내용	
준비물	
활동 세부 기록	
활동하며 배운 점	
추가 아이디어	
기타	

신앙 길잡이 노트

행동한 날짜	
혼자 / 함께	
활동 내용	
준비물	
활동 세부 기록	
활동하며 배운 점	
추가 아이디어	
기타	

신앙 길잡이 노트

행동한 날짜	
혼자 / 함께	
활동 내용	
준비물	
활동 세부 기록	
활동하며 배운 점	
추가 아이디어	
기타	

신앙 길잡이 노트

행동한 날짜	
혼자 / 함께	
활동 내용	
준비물	
활동 세부 기록	
활동하며 배운 점	
추가 아이디어	
기타	

신앙 길잡이 노트

행동한 날짜	
혼자 / 함께	
활동 내용	
준비물	
활동 세부 기록	
활동하며 배운 점	
추가 아이디어	
기타	

신앙 길잡이 노트

행동한 날짜	
혼자 / 함께	
활동 내용	
준비물	
활동 세부 기록	
활동하며 배운 점	
추가 아이디어	
기타	

신앙 길잡이 노트

행동한 날짜	
혼자 / 함께	
활동 내용	
준비물	
활동 세부 기록	
활동하며 배운 점	
추가 아이디어	
기타	

신앙 길잡이 노트

행동한 날짜	
혼자 / 함께	
활동 내용	
준비물	
활동 세부 기록	
활동하며 배운 점	
추가 아이디어	
기타	

신앙 길잡이 노트

행동한 날짜	
혼자 / 함께	
활동 내용	
준비물	
활동 세부 기록	
활동하며 배운 점	
추가 아이디어	
기타	

CBCK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여성소위원회

『할머니☆할아버지는 신앙 길잡이』는

‘손’자녀를 위한 ‘조’부모의 신앙 안내서로

손자녀와의 긍정적인 활동을 통해

조부모의 신앙 경륜을 유산으로 이어가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발간하였습니다.



ISBN 978-89-7228-651-6

CBCK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여성소위원회